

### 38장 - 예수 우리 왕이여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322장 -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1)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 (2)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 (3)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1월 30일(목) 기도 담당 : 정연철 집사

2020년 1월 29일(수)

##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8장 ..... 다 같 이  
기 도 ..... 전관식 집사  
성 경 봉 독 ..... 스가랴 9장 8~10절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 성취될 예언 』 ..... 박세훈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322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 📖 오늘의 말씀 < 스가랴 9:8~10 >

- 8)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박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 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끌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1월 29일(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온 세상을 지키시며 돌보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진실한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을 두시고 세세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삶의 형편에서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도록 이끄시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말씀의 성취 앞에서 겸손히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뜻 안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의 굴곡진 역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변 열강의 대립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경험하지만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 의지합니다. 지금도 역사의 흐름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공의와 진리를 세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북핵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의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이끄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예배당의 완공을 이끄셨으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 뿌리내리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 뜻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두시고 친밀한 주님과 교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두마니스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섬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